



광주 FC 선수단이 지난 14일 백운산에 올라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쌈’ 끝... ‘쌈’ 시작

광주 FC 오늘부터 태국서 2차 캠프 팀워크 다지고 베스트 11 경쟁 돌입

광주 FC가 태국에서 2016시즌을 위한 칼을 간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20일 밤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다.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광양에서 1차 캠프를 치렀던 이들은 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즌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광양은 ‘쌈’을 타는 시간이었다. 광주의 아들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게 된 신인들과 기회의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패트리아트’ 정조국 등 이적생들이 기존 선수들과 새로 호흡을 맞추면서 광주의 축구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눈 쌓인 광양 백운산에 올라 올 시즌의 힘찬 질주를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몸 풀기는 끝났다. 태국은 실전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베스트 11을 향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5차례의 연습경기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따뜻한 곳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되는 광주는 24일 타이포트 FC와 첫 연습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27일에는 인기와 실력을 갖춘 무양통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을 갖는다. 또 라찰부리(30일), 방콕글라스(2월1일), 수판부리(2월3일) 등과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앞선 캠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 시즌의 큰 틀을 그리게 된다.

특히 무양통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광주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빅매치’다.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전 같은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태국 캠프는 내달 6일 끝났다. 그리고 2월10일 2016시즌을 위한 세 번째 관망이 선수들을 기다린다. 최종 리허설 무대는 일본 미야자키다. 앞선 2년 일본 시즈오카를 캠프지로 선택했던 광주는 더 따뜻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광주는 2월10일부터 25일까지 3차 캠프를 소화하며 베스트 11을 확정, 3월12일 예정된 포항 스틸러스와의 2016시즌 개막전 필승 전략을 짜게 된다.

올 시즌 ‘캡틴’으로 광주를 이끌어가게 된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작년처럼 하나 뭉치는 느낌이 될 한 것 같다. 광양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적인 부분과 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했다”며 “체력적인 부분과 바로(태국에서) 실전경기를 해야 하는 만큼 실전을 위한 준비를 병행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고 앞선 광양캠프에 대해 말했다.

또 “발을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에서의 연습경기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러나 기존 선수들은 새 선수들, 새 선수는 기존의 선수들 파악하고 연습경기를 통해서 어떤 축구를 하는지 이해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팀 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태국 캠프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따뜻한 곳이어서 움직임들도 더 좋아질 것 같다”며 “올해 목표도 높게 잡으면 6강이고, 현실적으로는 잔류가 될 것 같다. 선수들에게 빨리 인식시켜서 어떻게든 팀의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 넣는 수비수’ 김진환 광주 FC 입단

‘골 넣는 수비수’ 김진환(사진)이 광주 FC의 새 식구가 됐다.

광주는 19일 지난 시즌 인천의 썬물 수비를 이끌었던 중앙수비수 김진환(26)을 영입했다.

2011년 강원 FC를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른 김진환은 186cm 76kg의 체격을 바탕으로 공중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 빠른 스피드를 보유했으며 수비 리딩 능력과 판단력이 돋보인다.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김진환은 데뷔 첫 해 19경기에 나서는 등 강원에서 뛰었던 3시즌 동안 50경기에 출전했다.

인천으로 이적한 2014시즌 2경기에 나서는데 그쳤지만 2015시즌 20경기를 소화하면서 입지를 굳혔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뛰어난 집중력으로 3골을 기록하면서 팬들로부터 ‘수트라이커’라는(수비수+수트라이커)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김진환은 수비수로부터 시작하는 광주의 빌드업과 빠른 스피드에 맞는 ‘맞춤형 수비수’라는 평가다.

광주는 “김진환은 군 입대로 생길 정준연, 안영규의 빈자리를 메워줄 완벽한 카드”라며 “팀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 또한 높아 활용도가 많은 선수”라고 밝



했다.

김진환은 “팀에 늦게 합류한 만큼 남들보다 두 배 이상 뛰어아만 쫓아갈 수 있다. 전술적으로 수비수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라운드에서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지방 스완지에서 열린 스완지 시티 AFC와 왓포드 FC 간 영국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기성용(스완지시티·오른쪽)이 에티오피아 카푸로부터 공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날 기성용은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1대0 승리에 기여했다.

/연합뉴스

새 감독 앞에서 기사회생 기성용 시즌 첫 도움 1-0 승...스완지 강등권 탈출

기성용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정규리그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강등권 위기에 놓인 스완지시티를 구했다.

스완지시티는 19일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리그 22라운드 왓퍼드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기성용은 전반 27분 오른쪽 측면에서 크

로스를 올렸고 이 공을 수비수 애슐리 윌리엄스가 문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만들었다. 기성용은 지난 8월 25일 캐피털원컵 요크시타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데 이어 약 6개월만에 리그 첫 어시스트를 올렸다. 리그에서는 지난달 27일 웨스트브로마의 홈 경기에서 팀의 1-0 승리를 이끈 귀중한 결승골에 이은 23일만의 공격포인트였다.

기성용은 후반 42분 교체돼나갈 때까지 왕성한 활동량을 보였다. 기성용의 순도 높은 도움에 힘입은 스완지시티는 웨스트브롬전 이후 리그 4경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까지 포함하면 5경기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리그 3연패 위기에서 벗어난 스완지시티는 5승7무11패(승점 22)로 순위 18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다.

한편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게리 몽크 감독을 경질하고 앨런 커티스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아왔던 스완지시티는 귀돌린(61) 전 이탈리아 세리에A 우디네세 칼초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기성용은 귀돌린 감독이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팀 승리에 공헌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

주전 경쟁에 못쓰는 ‘손’ 컵대회서 반전 노려라

손흥민 내일 FA컵 64강

손흥민(토트넘·사진)이 정규리그 8경기 연속 교체투입의 아쉬움과 ‘컵대회 전용’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반전을 준비한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21일(한국 시간) ‘난전’ 레스터시티와 2015~2016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 재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지난 10일 대결에서 두 팀이 2-2로 승부를 내지 못해 다시 열리는 경기다. 이긴 팀은 32강에서 콜체스터 유나이티드(3부리그)와 맞붙는다.

당시 손흥민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아 풀타임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따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정규리그에서 계속 후반 막판에 투입된 터라 레스터시티와 FA컵 64강 재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의 최대 과제는 득점포 가동이다. 그는 골맛을 본 것은 지난달 29일 왓퍼드와 정규리그 19라운드가 마지막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4골 5도움(정규리그·유로파리그 포함)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정규리그에서는 2골 1도움이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한 것은 최전방 공격진을 보강하겠다는 의도였지만 14경기에서 2골은 아쉬운 성적표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정규리그에서는 사실상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처지가 됐고, 유로파리그와 FA컵 등 컵대회에서 선발출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더불어 포지션 경쟁자들인 크리스티안 에릭센(4골 6도움), 라멜라(3골 3도움), 델리 알리(5골 3도움) 등이 정규리그에서 맹활약하는 통에 손흥민은 후반 조커로 인식되면서 역할이 줄어드는 형국이다.

손흥민은 결국 최근 8경기 연속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다. 출전 시간이 줄면서 득점 기회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움직임이 많지 않아 역습 상황에서 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손흥민으로서는 그나마 정상적인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컵대회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번엔 FA컵 64강 재경기를 지르는 레스터시티는 정규리그 2위를 달리는 강팀인 만큼 손흥민이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활약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강정호

“류현진·강정호 전반기 복귀”

MLB닷컴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복귀 시점과 회복 여부는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2016시즌 주요 변수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9일(이하 한국시간) 부상을 털고 2016년에 복귀할 메이저리거 15명을 소개했다. 류현진과 강정호는 ‘개막전에 등장할 선수’로 꼽히지 않았다. 하지만 MLB닷컴은 둘을 ‘전반기 내 복귀할 선수’로 분류했다.

MLB닷컴은 “다저스가 류현진이 2013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했다면 스코트 카즈미어와 마에다 겐타 중 한 명만 영입했을 것”이라며 류현진의 ‘완벽한 복귀’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류현진은 지난해 5월 22일 왼 어깨 수술을 받았다.

MLB닷컴은 “어깨 수술은 회복 시간을 장담할 수 없어서 다저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류현진은 스프링캠프부터 나서고 싶어하지만 정규시즌이 개막하고서 몇 주 뒤에 등판하는 게 가장 현실적

인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강정호의 복귀 시점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쉽다. MLB닷컴은 “개막전 출전은 어렵겠지만, 4월 복귀는 매우 유력하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9월 18일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수비 도중 상대 주자 크리스 코글린의 거친 태클에 넘어졌고 왼 무릎 수술을 받았다.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MLB닷컴은 “류현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투수 영입에 나선 다저스와 달리 피츠버그는 (내야수)닐 위커를 트레이드했다. 강정호가 복귀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MLB닷컴은 “류현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투수 영입에 나선 다저스와 달리 피츠버그는 (내야수)닐 위커를 트레이드했다. 강정호가 복귀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LB닷컴은 “어깨 수술은 회복 시간을 장담할 수 없어서 다저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류현진은 스프링캠프부터 나서고 싶어하지만 정규시즌이 개막하고서 몇 주 뒤에 등판하는 게 가장 현실적

/연합뉴스